

# 중소 도시 지역혁신체계에서 대학의 역할

: 원주시 TIC/RRC를 사례로

## Role of Universities in the RIS of Laggard Cities : A Case Study of TIC/RRC in Wonju City

최지선(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역혁신팀 부연구위원, choijs@stepi.re.kr)

지방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 단위의 혁신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보편화되면서, 지역의 주요 혁신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혁신환경이 취약한 지방의 경우, 대학은 실질적으로 지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혁신 주체로서 인식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주요 중앙 부처는 경쟁적으로 지방 대학과 연계된 사업을 확대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지역의 혁신역량, 특히 지역 기업의 혁신역량을 증진시키는 촉매제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업 가운데 기술혁신센터(Technology Innovation Center: TIC)와 지역협력연구센터(Regional Research Center: RRC) 사업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두 사업은 대학 내 해당 센터의 운영 지원을 통해 산/학/연 연계를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통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각각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현재는 산업자원부 사업으로 통합됨) 사업으로 출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혁신센터가 고가 장비의 구입을 통해 지역 기업의 실질적 애로 사항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지역협력연구센터는 연구역량 확충과 우수 연구 성과의 지역 이전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들 센터의 성과는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어떤 지역에서 이들 센터는 유사한 수많은 대학 내 센터 중 하나에 지나지 않으며 운영 또한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지방, 특히 일부 중소 낙후 도시에서 이들 센터는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지역의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육성하며 지역 산업 성장의 토양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대학의 해당 센터는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타 대학, 관련 우수 인력, 그리고 지역 기업을 하나로 아우르는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지역의 혁신체계 구축 과정에서 지방 대학의 역할에 대한 문헌 연구를 수행한다. 이어서, 우리나라 기술혁신센터와 지역협력연구센터의 발전 과정 및 현황 그리고 지역에서 이들 센터의 역할에 대해 문헌 자료 및 설문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끝으로, 이들 센터 중 중소 낙후 도시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로 조사된 원주시의 사례를 각종 1, 2차 문헌 자료와 관련 기관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지역혁신체계 구축과정에서 지방 대학의 역할에 관한 학술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낙후 도시의 지역 산업 발전 및 지역혁신역량 증진을 위한 대학의 바람직한 역할과 발전 방향 설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